

# 염불선은 불교 수행의 근본사상

청화사상연구회, 5월 22일 세미나 열고 염불선 전통 집중 조명

서산 대사도 '염불이 곧 참선'이요 참선이 곧 '염불'이라고 하며 염불수행을 권장했다. 역대 선사들은 선과 염불을 함께 닦을 것을 권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부터 선불교 중심의 한국불교에서 염불은 노인이나 하근기 중생의 타락신앙으로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생기기 시작했다.

조준호 "초기불교선 염불이 선정"

최동순 "청화 스님 천태사상 반영"

박경준 "선과 염불 회통해야 발전"

이런 와중에 '염불만 해도 성불한다'며 염불선을 주창한 청화 스님은 근대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청화 스님의 염불선 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청화사상학술 세미나가 청화사상연구회 주최로 5월 23일 동국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의 '초기와 부파불교에 나타난 염불과 선', 최동순 불교학술원 연구원의 '청화 스님의 천태교관 이해', 박경준 동국대 교수의 '대지도론'에 나타난 대승의 염불과 선' 등이 각각 발표됐다.

먼저 조준호 연구원은 "초기불교나 이후의 부파불교에서 염불과 선정은 별개의 방법으로 출발하거나 전개하지 않았다"며 "초기불교나 부파불교는 선정 속에 염불이 있고, 염불 속에 선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처음부터 양자는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

고 '염불의 선'인 염불선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이는 염불선의 청화선사 또한 부단히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전적을 비롯한 수많은 경론에서 염불선의 근거와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며 "특히 부파불교 오정심관(五停心觀) 중 염불관(念佛觀)이 선정수행에 위치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대승의 주류 부파인 중관이나 유식에서도 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초기불교나 부파불교, 대승불교에서는 붓다를 진리체(眞理體)로 보며 그 자체로 실상이기에 염불선은 '실상염불선'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 "화산선 중심의 한국 불교에서 예외적으로 청화선사에 의해 강조된 염불선은 불교의 근본선이며 이는 시대적 지역적 그리고 종파적 한계를 뛰어넘



조준호 연구원



최동순 연구원



박경준 교수

은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동순 불교학술원 연구원은 "청화 스님은 상하근기의 대승이 참여할 수 있는 수행을 위해 염불선을 주창하고 여기에 천태종교의와 실천론 역시 비중있게 수용하였다"며 "특히 유심정토론과 본시성불론, 그리고 일심삼관의 관심법 수용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청화 스님은 화두참선을 전문수행자의 몫으로 여겼으며, 이는 대승불교운동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스님은 천태종 원돈교관을 참조해 차제행을 수용했다"고 예를 들었다.

최 연구원은 "스님은 우리 몸에 두루 법신이 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천태종, 특히 사명 지례의 사상과 연관돼며 입증 이후 다른 세상에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염불 중

견불한다는 유심정토사상으로 이어진다"며 "청화 스님의 지향인 원통불법과 그 실천인 일심삼정은 천태종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대승불교 구현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박경준 교수는 "한국불교의 긴 역사 속에서 선과 염불은 가장 일반적인 수행 전통을 형성해왔다"며 "청화 스님은 은사인 금타 스님의 <보리방편론> 가르침에 의거해 선과 염불의 전통을 하나로 회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수행법을 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바로 염불선이라며 현대 불교계가 이러한 수행법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개칭 15주년 기념식에 이어 단체 헌혈에 나선 문화재청 직원들의 모습. 문화재청은 각 국 별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 문화재청 개칭 15주년... 자정·결의 다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문화재청이 개칭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문화재 관리 및 보수 부실에 관련한 자정·결의 다짐과

분위기 쇄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개칭 15주년 기념식 발족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일일 행사는 최근 문화재 관리 및 보수 부실에 관련한 자정·결의 다짐과

노덕현 기자

## "티벳 불교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이종복 박사,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강조

후기 대승불교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티벳불교, 막연하게 생각했던 티벳불교의 전통을 상세히 설명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5월 22일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이종복 미스터리대 교수(사진)를 초청해 '종파로 보는 티벳불교'를 주제로 5월 열린논단을 개최했다.

지 인도불교의 후기 전파 및 신역이 진행된 부흥기, 이후 1450년까지 황금기로 나눌 수 있다"며 "후기 까뻬의 형성을 시작으로 까뻬, 사가빠, 조남빠, 신까뻬 등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각 종파는 엄격한 계율, 밀교 요가 전승 등에 차이가 있음을 들려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노덕현 기자



## "연기 사상, 시대와 지역마다 달리 변화했다"

<불교학연구> 38집, '연기사상의 성립과 전개' 논길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가 최근 펴낸 <불교학연구> 38집 주제인 '연기사상의 성립과 전개'는 연기에 대한 총체적인 조명과 연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학술집에서는 원과 스님의 '고따마 붓다의 정각과 12연기'를 시작으로 박창환 금강대 교수의 '구사론주 세친(바수반두) 연기관'의 연속과 불연속', 남수영 동국대 박사의 '용수와 길장의 연기설과 중도설', 차상엽 금강대 박사의 '연기와 공성 그리고 여래장에 대한 티벳 주석가들의 상이한 이해' 등 붓다 재세 시부터 이후 불교사 발전에 따른 교학적 이해와 관점의 변화, 발전, 흐름을 담았다.

원과 스님은 "붓다의 정각과 12연기"에서 12연기가 대표성을 갖지만 그 보완을 4성제가 하고 있음을 <城輪經(Nagaropamasutra)>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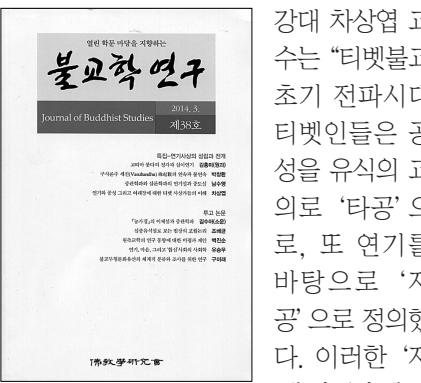
원과 스님은 "붓다의 정각은 두 단계로 이뤄지는데 첫째는 여러작의하는 동안 연기법에 대해 여실히 환관하는 단계, 둘째는 그 현관한 것을 4성제의 틀에 적용시켜 새로운 다르마로서 여실지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붓다의 정각을 개인적 해탈체험에 제한하지 않고 중생구제와 관련된 진리의 발견으로 간주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남수영 박사는 '용수와 길장의 연기설과 중도설'에서 인도 중관파와 삼론종의 연기설과 중도설에 대하여 각각의 대표적 학자인 용수와 길장을 중심으로 살폈다.

남수영 박사는 "중관파의 비유비무 중도와 삼론학의 비공비유 중도는 표현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그 근본사상은 같으며 시대상황에 따라 표현 형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용수는 연기인 사물들을 불일 불이(不一不異)라고 설하지만, 길장처럼 불이(不二)를 더 강조하지는 않으며, 연기인 사물들이 상즉(相即)이라고 설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용수와 길장의 차별성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연기와 공성 그리고 여래장에 대한 티벳 주석가들의 상이한 이해"를 발표한 금



강대 차상엽 교수는 "티벳불교 초기 전파시대 티벳인들은 공성을 유식의 의로 '타공'으로, 또 연기를 바탕으로 '자공'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자공'과 '타공'에 대한 이해 차이가 둔황에서 출토된 초기 티벳사본의 학술강요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여래장 자체가 공(空)이 아니라, 번뇌가 바로 공"이라며 "이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반야경 이래의 정의와 상호연결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또 "인도와 티벳에서는 연기와 공성, 그리고 여래장에 대한 이해가 각 시대에 따라서, 각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노덕현 기자

## 대·소승 '일심' 연관관계 고찰

금강대(총장 정병조) 불교문화연구소는 5월 27~28일 이틀간에 걸쳐 '경량부(sautrantika)와 유가행파(yogacara), 그리고 설일체유부(sarvastivada)를 주제로 '제18회 저명학자 초청강연회 및 강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는 권오민 교수(경상대학교 철학과)를 사회로 27일에는 경량부와 유가행파와의 친연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 혹은 선입견과는 달리, 불교 연기의 현주소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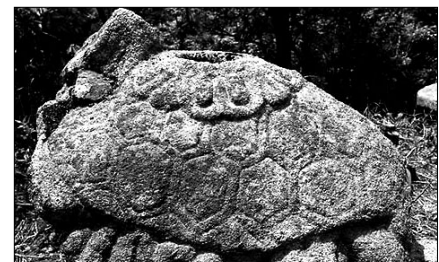
또 28일에는 그동안 검토되거나 연구되지 않았던 경량부의 '일심(一心)'과 함께 유식학파의 '알라야식'의 관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권란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경량부의 '일심'에 관한 연구는 '알라야식'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거나 적어도 이 사상이 '알라야식'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041)731-3026

노덕현 기자

## 영암 월출산에 고려 초 삼층 석탑·석등 발견

전남 영암 월출산 사자봉 부근에서 고려시대 초기로 추정되는 삼층 석탑과 귀부형 석등(사진)이 발견됐다. 5월 20일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영암문화원과 합동조사팀을 꾸려 지난해부터 월출산에 존재하는 비지정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높이 6m, 기단 넓이 3m의 거대한 삼층 석탑을 발견했다. 발견된 위치는 천황봉 동남쪽 1300m(해발 550m) 능선 330m가량의 평탄한 곳으로 무위사 삼층석탑(946년) 및 용암사지 삼층석탑(1006년)과 그 양식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리내리는 산등성이에 하나의 봉우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공원사무소는 설명했다.

김승희 소장은 "삼층 석탑이 허약한 국토의 지세를 다스리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비보탑(裨補塔)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노덕현 기자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립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로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와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조제마이크 1대 · 무선 띠 마이크 + 헤드셋 1세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 1대

◇ 특징 :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 띠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내믹 마이크

- V-620 : 65,000원
-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87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통,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6월 30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7월 1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2014년 6월 9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